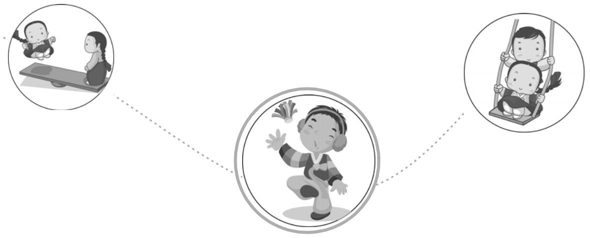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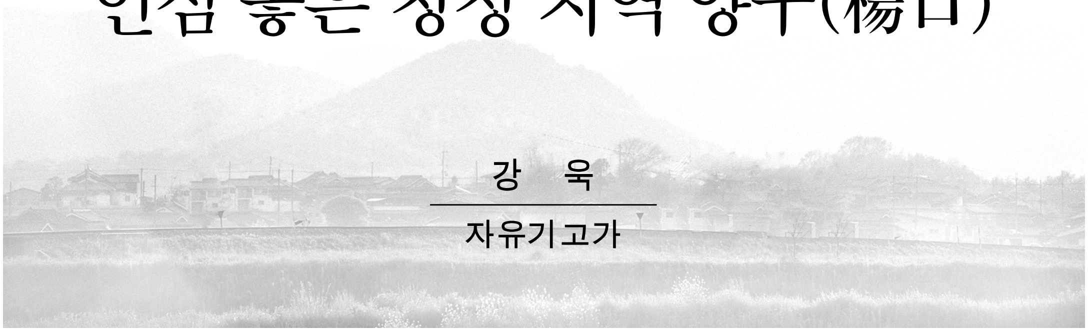
문화 기행



인심 좋은 청정 지역 양구(楊口)



강 욱
자유기고가

강원도 양구군은 백두대간과 금남정맥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우리나라 동북부 중앙인 동경 128° 12′, 북위 28° 18′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북동쪽 147㎞, 춘천에서 북동쪽 65㎞ 거리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인제군, 서쪽은 화천군, 남쪽은 춘천시 그리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회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금강산으로 가는 유일한 육로의 관문이기도 한다.

양구군은 잘 보전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순후한 인심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선사 유적이 많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다. 최근에는 각종 도로망의 확충으로 수도권과 설악권, 동해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하고 있다. 국내 최대인 소양호 뱃길과 파라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을지전망대·제4땅굴·전쟁기념관 등 많은 6·25 전적기념물이 있다. 또한 대암산 용늪·두타8연 등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 쉬는 대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국내 최초로 세워진 양구 선사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넓이가 가장 작은 군인 양구군은 현재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등 5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방산면과 동면은 머리 위로 휴전선이 지나고 있어 절반쯤의 땅이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들어 있다.

양구는 고구려 때부터 독립된 고을이었지만 워낙 작은 고장이어서 고려 왕조 중기부터 조선 왕조 초기까지에는 이 고장에 관리의 우두머리를 따로 두지 않았다. 그 무렵에는 현이 지금의

군에 버금가는 지방 행정 단위였는데, 여느 현에서는 현령으로 불리는 관리의 우두머리를 두었고 아주 작은 현에는 현령보다 낮은 직급인 '감무'를 관리의 우두머리로 두었었다.

1894년에는 양구현 이었으나 그 뒤로 여러 곡절을 겪었고, 1908년에는 아예 이름조차 없어지고 화천군에 합쳐진 적도 있다가 도로 양구군이 되었다. 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이곳 사람들은 제 고장이 화천군과 따로 떼어진 군이기는 하지만 화천군 사람을 마치 친한 이웃 사람 대하듯 한다. 그런 마음은 강원도의 여러 군끼리 겨루는 운동 시합을 할 적에도 잘 드러난다.

양구군은 임야가 74%이고 농경지는 12%에 불과하나 푸른 산과 맑은 물, 그리고 잘 보존된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임산물이 많이 난다. 비록 질펀한 들판은 없지만 "양구 모래 한 말은 쌀 한말하고 안 바꾼다."는 말을 들을 만큼 이 곳은 땅이 기름지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쌀은 품질이 뛰어나서 조선 왕조 시대에는 경기도 여주쌀이나 이천쌀과 함께 진상품으로 바쳐지기도 했고 해방 전까지만 해도 서울이나 춘천 같은 곳의 쌀가게에서 '양구쌀'이라는 팻말을 써 붙이고 여느 쌀보다 값을 비싸게 쳐서 받기도 했다.

논밭이 기름지고 먹을거리가 넉넉한 농촌이 거의 그렇겠지만 이곳은 사람들의 인심이 순박하여 강원도 여러 고을 사람들의 기질을 나타내는 타령조의 노래에 '양구 군민'이라는 구절이 있을 만큼 예로부터 문을 열어 놓고 자도 도둑이 안 들어 편히 잘 수 있는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이곳의 산은 대부분이 6.25 전쟁 때에 피로 물든 싸움터였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산미나리, 더덕, 도라지, 송이버섯, 고사리, 두릅 같은 산나물을 캐러 나선 아낙네들이 이 전쟁 때에 죽은 사람의 해골이나 뼈 부스러기가 소롯이 남아 있는 것을 더러 볼 수가 있었다.

6.25 전쟁 전에는 이름이 없었거나 달리 불리던 산등성이나 산봉우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인이 바뀌는 싸움이 벌어진 뒤에 그때의 처절함을 암시해 주는 이름이 붙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펀치볼 분지, 크리스마스 고지, 유엔 고지 같은 것인데 특히, 방산면 현리에 있는 '피의 능선'과 그 북쪽에 11㎞에 걸쳐서 줄지어 늘어선 산봉우리들을 이르는 '단장의 능선'은 전쟁이 한창 막바지로 치닫던 1951년에 이 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치열했던 싸움터이다.

그해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피의 능선에서 계속된 싸움에서, 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의 역사학자인 티 알 페렌바크가 쓴 「이런 전쟁」에 따르면 "한국군과 미군 제2사단은 전선을 따라서 자리 잡고 있는 고지 몇 백 개 중에서 보잘 것 없는 이 둥근 언덕 세 개를 차지하기 위해서 4천명도 더 되는 아군 병사들이 목숨을 바쳤다"고 한다. 그때에 공산군도 4천명이 넘게 죽었고 만 명이 넘게 다쳤다. 이곳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곳이어서 종군 기자들이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독일 서부 전선의 싸움터에 붙은 이름을 본 따서 '피의 능선'이라고 불렀다.

애간장을 끊는 듯한 슬픔이 어린 곳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은 '단장의 능선'은 미군이 이 나라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른 곳으로 꼽힌다.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에 이곳에서는 사만명이 넘는 군인이 죽거나 다쳤다. 그 때에 미군이 손 포탄만 해도 이십만 알이 더 되었다.

양구는 '육지 속의 외딴섬'으로 불릴 만큼 교통이 워낙 불편한 깊은 산골이고, 남아있는 문화유적이나 구경꾼이 몰려 올 만큼 널리 알려진 구경거리가 다른 군에 견주면 드물어도 이곳을 찾는 외지 사람들은 많다. 휴전선이 가까운 다른 곳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이곳도 다른 지방에서 온 듯한 낯선 말씨를 쓰는 사람은 거의가 이곳에 와 있는 군인을 만나려고 온 군인의 가족이거나 애인인데, 토요일쯤이면 양구읍 거리는 그들로 붐빈다.

그들 말고도 이곳을 끼고 있는 화천 저수지와 소양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두 저수지에는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잉어, 쏘가리, 붕어, 빠가사리, 빙어 같은 민물고기가 많아서 서울이나 춘천 같은 곳의 낚시꾼들을 끌어들인다. 이곳은 물이 공해에 더럽혀지지 않아서 여기에서 잡힌 고기는 산 채로 서울이나 춘천 같은 대도시로 팔려나간다.

특히 청정지역에서 자란 빙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고 뼈가 연해 회나 매운탕을 만들거나 밀가루를 입혀서 기름에 튀겨 먹으면 맛이 좋으므로 인기가 높다. 몸길이가 15㎝쯤 되고 옅은 잿빛을 띤 빙어는 내장이 들여다보일 만큼 살의 빛깔이 맑은데 날씨가 추울수록 물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하순쯤부터 이듬해 2월 말쯤까지 잘 잡힌다. 그리고 그 때에 잡힌 고기라야 맛도 제 맛을 낸다. 겨울에 얼음을 깨고 낚시나 그물을 던져서 하는 빙어 잡이는 저수지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손해를 본 이곳 사람들에게 일손이 비는 겨울에 좋은 일거리가 되어 살림에도 큰 보탬을 준다.

양구군은 산과 강을 중심으로 작은 평지가 형성된 곳이 많아 아주 일찍부터 이곳에 인류가 살았음을 보여 주는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1986년에는 '평화의 댐' 공사를 위해 45년 만에 화천댐을 방류하면서 댐 공사로 수장되었던 양구읍 동수리, 고대리, 공수리, 상무룡리와 지금은 이름마저 없어진 주막거리, 용호리, 허수리, 방현리, 서호리 등이 옛날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 파로호 상류 지역이 지표에 드러나면서 유적조사단이 지표 조사를 하여 뚜렷한 구석기 유적의 징후를 발견했다. 그 결과 이곳은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에 버금가는 훌륭한 구석기 유적지로 밝혀졌다. 그리고 해안면 현리에서는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간석기와 토기편이 수집되었다.

따라서 양구군은 1997년 10월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것들을 보관 전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사박물관을 건립했다. 양구 선사박물관은 양구 시내에서 자동차로 3~4분 거리에 있으며, 설악산과 을지전망대 등으로 가는 길목이라 손색이 없는 문화관광 코스로 꼽힌다. 박물관은 전부 5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전시실은 선사시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제2전시실은 상무룡리에서 출토된 구석기를 중심으로 석기 제작 방법 등을 설명해 주며, 제3전시실은 출토 석기유물과 흑요석 그리고 구석기인의 수렵생활 모습을 보여 준다.

제4전시실은 해안면 현리의 유물들과, 고인들의 축조 과정 등을 모형으로 보여 주며, 제5전시실은 고대리, 공수리 고인돌 발굴 조사 과정을 대형사진과 모형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 밖에는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15기의 고인돌을 이전 복원해 놓은 고인돌공원이 있으며 그 밖에도 박물관 입구에는 민속자료관이 있어 선사유물과 더불어 다양한 민속자료들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한반도 내륙 중심에 위치한 양구는 이제 통일시대를 대비해 가며 쾌적한 환경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